

배포 2026. 8. 5.(수) 16:00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 체결

- 5일 군포산본 11구역 사업시행약정 체결, 분당 6·S3, 군포 9-2 이어 세 번째
- 협약에 이어 사업시행계획 수립 착수, 올 하반기 시공사 선정 추진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‘군포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’(이하 주민대표회의)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.
-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군포 산본 11구역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, 올해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360%까지 완화됨에 따라, 총 3,892세대 대규모 공급이 예정됐다.
- 이번 약정을 통해 LH와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, 사업 단계별 업무 분담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, 이를 기반으로 LH는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.
- 한편, LH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3곳의 선도지구(군포 산본 9-2구역, 11구역, 성남 분당 6·S3구역)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 내 진행할 예정이다.
- 지난 7월 24일에는 성남분당 6·S3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. 해당 구역은 80%가 넘는 주민 동의를 통해 올해 6월 사업시행자로 LH가 지정된 곳으로, 높은 주민참여도를 바탕으로 분당신도시 내 2,475세대를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.

- LH 관계자는 “이번 약정식은 주민과 LH가 하나의 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,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도심에 신속한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신도시정비처 (산본 11구역)	책임자	팀 장	박의호	(055-922-4503)
		담당자	차 장	신지윤	(031-343-4590)
	신도시정비처 (분당 6,S3구역)	책임자	팀 장	이병관	(055-922-4501)
		담당자	차 장	노수정	(055-922-4509)